

‘전북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출범

윤석진 前 KIST 원장 등 최고 전문가 8명 위촉… AI 산업 육성 시행계획 수립 등 핵심 정책 심의·자문 수행

전북 지역의 본격적 AI 산업 육성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전북자치도는 23일 도청 종회의실에서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이 자리에는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前 원장 등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함께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이 위원회는 AI 산업 육성 시행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 등 도의 핵심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북 인공지능산업 추진 현황과 AI 산업 생태계 조성 기본방향이 공유됐다. 전북연구원이 마련한 ‘AI산업 생태계 조성 기본방향’ 바탕으로 피지컬 AI 산업 육성, 농생명·모빌리티 등 주력산업과 융합한 인공지능 전환(AX) 전략이 제시됐다.

초대 위원장에는 윤석진 前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이, 부위원장은 원광대학교 강선경 교수가 선임됐다.



23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위촉된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연구·교육·정책 등 각 분야 전문가 8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국가 정책과 지역 전략을 잇는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과학기술 정책 전문가인 윤 위원장은 전북의 산업구조와 국가 AI 정책을 연계해 혁신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정례 및 수시 자문회의를 통해 AI 인프라 확충, 기업 지원, 인

력 양성 등 실질적 정책을 펼치고, 산·학·연·관 협력 체계를 강화해 전북을 대한민국 AI 산업 혁신의 중심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인공지능은 산업의 효율을 넘어 도민의 삶을 바꾸는 핵심 기술”이라며 “피지컬 AI 사업을 시작으로 인프라 구축, 기업 경쟁력 강화, 인재 확보로 이어지며 전북형 AI 생태계를 만들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북이 국가 인공지능 산업을 이끌어가는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진 위원장은 “위원회가 중심이 돼 국가 AI 발전 전략과 연계되는 산업 전환 방향을 이끌고, 지방의 AI 거점을 넘어 국가 AI 혁신의 전초기지로 자리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 I.B.T.F 행사 계기

핀란드대사관 초청 만찬

도-노르딕 3국, 이차전지 산업 미래전략 모색

핀란드 등 대사단 참석

글로벌 협력의 장 열려

새만금 글로벌 허브 도약



23일 군산 새만금컨벤션 및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열린 주한핀란드대사관을 초청한 ‘노르딕 3국 만찬 네트워킹 행사’에서 김관영 도지사는 유리 예르비아호 주한핀란드

대사를 비롯한 스웨덴·노르웨이 대사관 수석상무관, 김명환 한국화학연구원 이차전지연구단장 등 국내외 배터리 전문가 및 도내 기업·연구기관 관계자들에게 새만금 글로벌 이차전지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행사에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유리 예르비아호 주한핀란드 대사, 스웨덴·노르웨이 대사관 수석상무관, 김명환 한국화학연구원 이차전지연구단장 등 국내외 배터리 전문가 및 도내 기업·연구기관 관계자들에게 새만금 글로벌 이차전지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행사에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유리 예르비아호 주한핀란드 대사는 “전북의 이차전지 산업 비전은 매우 인상적이며, 재생에너지와 첨단 기술이 결합된 혁신적인 산업 환경을 갖추고 있어 핀란드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의 협력 가능성이 크다”며 향후 협력할 뜻을 전했다.

한편, 핀란드는 리튬·니켈 등 광물 자원을 활용한 소재·재활용산업을 강화하고 있다. 스웨덴은 정부의 적극적 지원 아래 이차전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배터리 벤처기업 전반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수력 중심의 청정 전력을 바탕으로 친환경 배터리 제조와 에너지저장(ESS) 산업을 확대하고 있다.

협력체계와 매뉴얼의 실효성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은 막을 수 없지만 철저한 대비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도민 한 분 한 분이 안전의 주체로 참여할 때 진정한 ‘안전 전북’이 완성된다”면서, “전북특별자치도는 사전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해 도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도민들이 직접 현장을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현장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 전북특별자치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재난 대응 요령 교육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 할 계획이다.

36대가 투입돼 재난 발생부터 수습·복구까지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점검했다.

훈련은 △사고 상황 접수 및 상황판 단회의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및 단계별 대응 토론 △현장 긴급구조·의료지원·교통통제·에너지 차단 등 실무 토론 △유안비어 대응 및 심리 회복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한 현장 실시간 교신, 소방드론 탐색, 신속동료구조팀(RIT) 시연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실시간 통합형 연

예정이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세계 여러나라 정상들이 모이는 기간인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도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경계근무는 오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 주요

전북자치도·전주시,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지진·붕괴·화재 발생의 복합재난 발생 가능성… 재난 발생·수습·복구 과정 단계별 점검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전형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전주시와 공동으로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23일 전주 바울교회에서 진행됐으며, 경남 거창군 북서쪽 18km 지점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해 전주 바울교회 교육관 일부가 붕괴되고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복합재난 대응 모의훈련이다.

도와 전주시, 완산소방서 등 19개 유관기관과 단체에서 260여 명이 참여했으며, 굴삭기·펌프카 등 장비

를 활용한 친환경 배터리 산업 육성 가능성을 제시하며, 새만금이 글로벌 이차전지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음을 강조했다.

노르딕 3국은 풍부한 지원과 청정에너지를 기반으로 유럽 배터리 산업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상호 협력을 통해 유럽형 순환생 및 기술협력 추진, 글로벌 투자 유치 연계 등의 협력 방안도 제시했다.

노르딕 3국은 풍부한 지원과 청정에너지를 기반으로 유럽 배터리 산업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상호 협력을 통해 유럽형 순환생

‘대응체계’ 구축

인명 구조 최우선 원칙에 따라 현장 대응을 펼칠 방침이다.

또한, 정상회의가 진행되는 경북 지역으로 전북의 소방차량 4대, 인원 22명이 투입됨에 따라 출동대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관서 당직을 강화하는 등 상황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세계 여러나라 정상들이 모이는 기간인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도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경계근무는 오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 주요

전북소방, APEC 정상회의 기간 특별경계근무 실시… 빈틈없는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APEC 정상회의 기간 긴급대응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도내 전 소방서에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경계근무는 오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 주요

간부를 비롯해 전 직원이 비상응소태 세를 유지하고 대형재난에 대비하여 소방장비를 100% 가동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재난 초기에는 가용 소방력을 전면 투입하여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서장 중심의 지휘체계를 강화해

인명 구조 최우선 원칙에 따라 현장 대응을 펼칠 방침이다.

또한, 정상회의가 진행되는 경북 지역으로 전북의 소방차량 4대, 인원 22명이 투입됨에 따라 출동대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관서 당직을 강화하는 등 상황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전북 RE100 산단, 전주기 산업 클러스터로

전북 백년포럼

글로벌 탄소규제 범위가 개별 기업 단위에서 공급망과 전주기(Life Cycle)로 확장된 만큼 전북 RE100 산업단지는 전주기 산업 클러스터로 도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23일 오전 8시,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전북 백년포럼’ 제41강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공급망과 RE100: 전북의 산업단지 고도화 전략 방향’을 주제로, 홍콩기기대(광저우) 류하늬 연구원이 강연을 진행했다.

류 연구원은 “RE100은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전환 캠페인이나, 이미 글로벌 규제 수준은 이를 넘어 공급망 전체와 제품의 전주기(Life Cycle)로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ESG 공시 의무화와 EU·미국의 탄소무역규제 등으로 인해 공급망 전체의 탄소 배출과 공정 투명성 관리가 수출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EU 배터리법은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전 과정의 탄소발자국

을 추적하는 전형적인 전주기 규제 사례로, 우리 기업들도 제품의 LCA(전과정평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수출 장벽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글로벌 공급망의 불특화, ESG 공시 표준화, 공급망 실사 의무화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어 지방정부 차원의 산업단지 전략도 이에 부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 연구원은 “전북의 RE100 산업단지 모델은 기존 산단 고도화를 통한 특화 산업 완결형 클러스터를 지향해야 한다”며, “이차전지 특화 단지는 원료·정·제련·소재·부품·셀·팩·제조·재활용을 아우르는 완결형 벤처체인으로, 재생에너지 산업단지는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부품 산업과 발전·운영·서비스가 결합된 전주기 생태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RE100 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해서는 RE 패스트트랙’을 통해 전력망과 투자를 연동하고, ‘송전망 건설 회피비용’을 기준으로 투자 확정 시점별 보전율을 차등 적용해 조기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 청년 창업박람회 ‘팡파르’

오늘까지, 청년 창업기업 30개사 제품 전시·네트워킹·투자유치

전북특별자치도가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전주 한옥마을 일원에서 2025년 전북 청년 창업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가 주최하고 (주)클조디아이나 믹스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청년의 꿈, 연결로 현실이 되다(Connecting Ideas, Creating Future)라는 슬로건 아래 청년 창업기업의 성장과 교류를 지원하고,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2회를 맞은 올해는 전주 한옥마을과 K-콘텐츠 공연하는 전주 한옥마을과 스마트업 라운지 기획공간을 활용해 지역 청년문화와 AI·로봇의 만남, 지속 가능한 전북 청년창업의 미래’를 주제로 창업 경험을 공유했다.

둘째 날은 (주)식음연구소 노희영 대표, 한양대 유영만 교수, (주)주미당 김동완 대표, STM군산특수 김영훈 대표가 함께하는 ‘선배창업가 및 업데이트’가 열릴 예정으로, 실패 극복과 도전의 노하우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만호 기자

전북 청년 창업박람회 방문·현지의정활동 추진

도의회 경산건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제42회 임시회 기간 중 23일 전주 남노송동 새뜰마을 도시재생거점시설과 ‘2025 제2회 전북 청년 창업박람회’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점검·시찰하였으며, 전북버스운송 사업조합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전북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위원회는 전주 남노송동 새뜰마을 도시재생거점시설 현장을 찾아, 새뜰마을 사업현황을 청취하고, 관련 시설을 점검했으며, ‘2025 제2회 전북 청년 창업박람회’ 개막식 행사와 청년

행사는 △청년 창업기업 제품 전시·네트워킹·투자유치 등 3개 축으로 구성됐다. 제품 전시는 기술, 테크, 플랫폼, 시풀, 디자인 5개 분야로 나뉘어 대사습장 일원에서 30개 사가 부스를 운영했다. 쇼호스트 신경찬 대표가 진행하는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현장 판매와 홍보도 진행됐다.

네트워킹 프로그램은 첫날 헬퍼로보 티스 최재원 대표, 사업가 겸 배우 흥석천, 인데스리서치 김선호 대표가 참여한 ‘로컬 창업 생태계 컨퍼런스’에서 ‘AI와 로봇의 만남, 지속 가능한 전북 청년창업의 미래’를 주제로 창업 경험을 공유했다.

둘째 날은 (주)식음연구소 노희영 대표, 한양대 유영만 교수, (주)주미당 김동완 대표, STM군산특수 김영훈 대표가 함께하는 ‘선배창업가 및 업데이트’가 열릴 예정으로, 실패 극복과 도전의 노하우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만호 기자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방문·역사문화 보존 현황 점검

도의회 기획행정정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희열)는 23일 정읍시를 방문하여 역사·문화 보존 정책 현황을